

이제 추격국가서 선도국가로 건너가자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

최진석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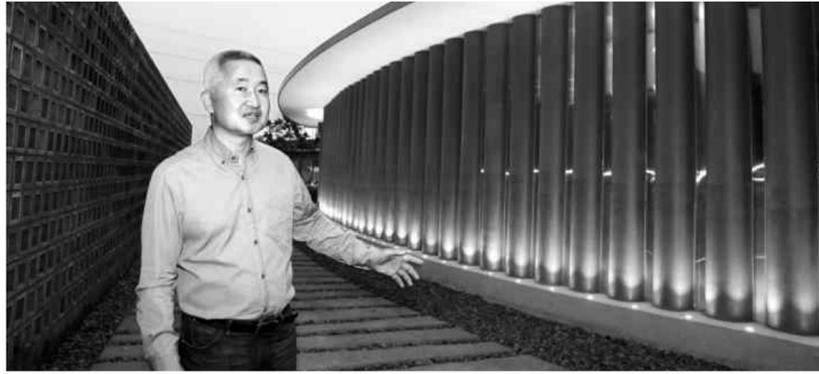
철학자 최진석(서강대 명예교수)은 여전히 이념 논쟁 중인 우리나라 좌파나 우파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안 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은 두 세력의 매력 없는 충돌에 운명을 맡겨뒀다는 것이다. '중북 좌빨'이니 '토착 왜구' 등과 같은 비방은 케케묵은 프레임에 씌워 상대에게 오명을 입히려는 수작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논쟁이 선악과 진위를 따지며 땀도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

최 교수가 펴낸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는 철학자 시선으로 읽어낸 대한민국 모습이다. '읽기'라는 표현에서 보듯,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한 이면들이 펼쳐진다.

저자의 지적대로 대한민국 현실은 선진국으로 향해 가는 진입로에서 함정에 빠진 형국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추격 국가에서 선두 국가로 도약하고, 일등을 추구하던 습관을 일류를 추구하는 습관으로 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생각의 결과로 살던 삶에서 스스로 생각하여 사는 삶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시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시선의 높이 이상을 하려고 덤비는 것은 세상사 이치에 대해 아는 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느라 분주한데 대한민국은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선도적인 위치를 놓치고 있다. 서로를 헐뜯는 진보와 보수는 과거에 갇힌 사유와 종속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 이처



서강대 명예교수인 최진석 새 말 새 몸짓 이사장은 "시선의 높이를 끌어올릴수록 전체를 넓게 보는 능력도 올라간다"고 말한다. 고향 함평에 건립한 인문학 공간 '호점동가'에서 포즈를 취한 최 교수. <광주일보 자료 사진>

럼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하는 사이 "기쁨이나 존엄이 아니라 하는 인간 기본기도 다 사라진 듯" 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위기를 생산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보는 이유다. 선진국, 일류국가, 선도국가, 창의성 같은 말들을 하고 열정을 쏟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76년 동안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이제는 새로운 길에 나서야 할 지점에 서있다.

도약해야 할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하강하게 되는 것이 세상사 이치다. 한 단계 더 높은 신화를 쓰기 위해 '각성'과 아울러 '종속성'을 탈피해야 미래가 열린다.

아울러 최 교수는 정치적인 일과 철학을 전혀 다른 별개로 보지 않는다. 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 외에도 공자와 노자도 궁극적으로 국가 통치를 염두에 둔 정치

철학자였다는 논리다. 즉 지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세상을 보고 문제해결을 논하면 철학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방식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정치가 된다는 견해다.

그에 따르면 철학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정치는 기능에 빠진 '정치 공작'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정치권력을 잡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에만 관심을 두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사회를 진보시키는 데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가 '정치 공작'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지적 확장이나 포용, 통합, 진보"와 같은 가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인다. "지적 사유보다는 감정적 믿음"에 치우친 양상은 그런 연유와 무관치 않다.

결국 이러한 문제 해결은 시선의 높이를 끌어올리는 데서 출발한다. 저자는 "시선의 높이 이상은 할 수 없다"며 "우리의 '건너가기'는 사실 도약이나 승승처럼 높아지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북루텐스·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 세대의 열정·사랑·좌절과 성장 이야기... 단편소설 7편 모음집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김금희 지음



'너무 한낮의 연애' 등으로 알려진 소설가 김금희의 이름을 더 기억하게 된 건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2018)을 통해서다. 인터넷 연애 상담 사이트에 글을 보내는 경애와 상담에 대한 솔루션을 보내주는 운영자 '언니' (실체는 남자인 '상수').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같은 회사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일하게 된 두 사람은 고교시절 겪은 호프집 화재 사건으로 친한 친구를 잃은, '또 다른' 공통된 기억을 갖고 있다. 이를 모른 채, 힘든 삶 속에서도 서로를 조심스레 의지하며 삶을 이어가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후 김금희는 짧은 소설집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산문집 '사랑 밖의 모든 말들' 등 부지런히 작업물을 내놓았고 김승옥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김금희의 새로운 소설집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가 나왔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7작품으로 각종 문학상 수상작·후보작들이 포함돼 있다. 김금희의 소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상상의 순간, 좌절의 경험을 불러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는 주인공들의 '자극'은 그 좌절을 딛고 조금은 성장하고 편안한 모습에서 연지 안도감이 느껴진다.

2020 김승옥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표제작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는 심사위원 김화영이 "한 세대의 열정, 사랑, 좌절, 그리고 그 좌절을 통한 성장을 증언하고 확인하는 아름다운 소설 그 자체"라고 평한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 '나'가 다큐멘터리 PD로부터 어느 순간 세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기오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지 묻는 메일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20대 시절, 기오성과 함께 노교수의 종택에서 죽보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나'는 그와 차츰 가까워지지만 노 교수의 손녀 '강선'이 끼어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어긋나고 만다.

2019 김승옥문학상 우수상과 2020 이효석문학상 우수작품상을 받은 '마지막 이기성'은 한국인 유학생 차별 사건의 피해자인 일본 유학생 '이기성'과 그 자리에 있었던 재일 한국인 '유기코'의 연애와 투쟁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다. 또 '기괴의 탄생'은 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까지 한 은사 등 사랑 앞에서 벌어진 어떤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밖에 대학진학에 실패한 삼수생과 의대에 입학했지만 적응하는 데 실패한 이가 함께 보낸 여름날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한 '우리가 가능했던 여름', SNS에서 '맛집 알파고'로 유명한 옛 연인을 인터뷰하기 위해 떠난, 한바탕 소동같은 하루를 담은 '크리스마스에는', 제주도 레지던스 공간에 이주한 작가들이 고장 난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깊이와 기술기'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창비·1만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근대여성작가선=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여성 작가 5인의 주요 작품 모음집.** 근대 최초 여성 작가이자 남성 중심 사회의 폭력성을 고발한 김명순 작가의 자전적 소설 '탄실이와 주영이'부터, 민족해방운동가들의 가부장적 관습과 이에 순응하는 여성의 태도까지도 비판하며 '여성해방 없인 인간해방 없다'고 지적인 임순득 작가의 '이름 짓기' 등을 수록했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오늘도 차를 마십니다=한의학 박사이자 사상체질 전문가의 김달래가 맛있고 몸에 좋은 약차와 꽃차를 소개한다.** 증상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약차 40가지와 눈, 코, 입으로 세 번 즐기는 꽃차 20가지, 평소 물 대신 마시면 좋은 생활차, 재료 준비와 다양한 이용법 등까지 알려준다. 각 차마다 효능과 마시는 방법, 차를 즐기기 위한 기본 정보도 담았다. <리스크·1만5000원>



▲**동물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다고요? =수의사들이 들려주는 동물과의 공존 이야기다.**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삶, 신종 감염병의 원인,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 동물 복지와 동물원의 뒷방, 동물실험의 3R(대체, 사용 동물의 숫자 감소, 불가피한 동물실험 진행 시 고통의 완화) 원칙과 동물 보호 운동의 쟁점 등 인간-동물 관계의

역사부터 이미 시작된 변화의 흐름까지 이야기한다. <휴머니스트·1만3500원>

▲**안전하고 색다른 여행= '우리나라 어디까지 가봤니? 56'과 '대한민국 숨겨진 여행지 100'의 저자 이종원 작가의 신작이다.** 그가 2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아낸 여행지와 또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여행지를 엄선해 한 권으로 묶었다. 안전한 여행지 100선, 색다른 여행지 50선, 인생샷 명소 100선 등도 뽑아 부록으로 게재했다. <상상출판·1만6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영화 속 그 아이=**지난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영화 '낙화전향'에 참여했던 저자 임지형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동화다. '낙화전향'에서 계엄군한테 맞아 죽는 아이를 연기한 찬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미디어창비·각3만9000원>

우고, 어린이야말로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자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먼저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전한다. <라임·1만3000원>

▲**우리는 지구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유엔 어린이 권리 협약'의 내용 중에서도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한다.** 지구가 처한 현실을 어린이의 목소리로 전해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너도 동 먹니?=**동물들의 똥에 대한 퀴즈 그림책. 세계의 동물학자들이 전하는 열여덟 종의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책은 다소 친숙한 동물부터 조금은 낯선 이름의 동물까지 그들의 생태에 대해 더 많은 과학적 사실들을 소개한다. 동물에게 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나무아·1만4000원>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h3>미스트크리너</h3> <p>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p>	<h3>더스트크리너</h3> <p>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p>	<h3>전기집진기</h3> <p>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p> <p>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p>
---	--	---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